

제품 단가 주춤, 시장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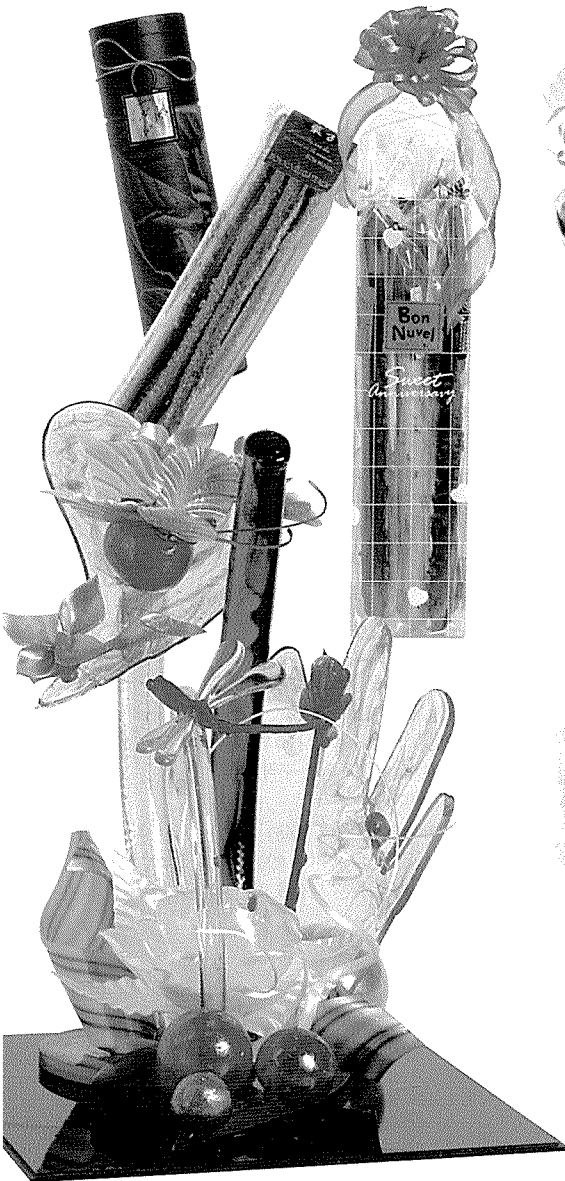
# 빼빼로는 내운명

11년째를 맞이한 토종 이벤트데이 빼빼로데이가 범국민 이벤트데이로 자리잡았다. 사랑을 고백하는 발렌타인데이를 제치고 최고의 이벤트데이로 등극한 빼빼로데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빼빼로를 전하는 날로 인식이 굳어 범국민 이벤트데이로 정착했다. 제과점별 인기 빼빼로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글\_박소희 기자 · 사진\_전문식, 주현진



블랑제리외르크 하트 모양 빼빼로에 초콜릿을 코팅하고 아몬드 슬라이스, 레인보우를 붙여 판매한 인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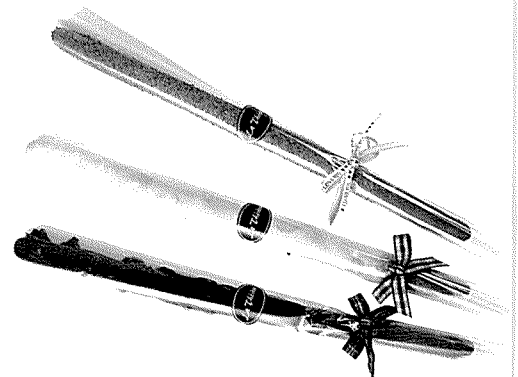
본누벨과자점 페이스트리 반죽을 얇게 재단해 구워 낸 고소한 빼빼로를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담아 포장했다. 사진 주문을 받아 제작한 연인을 위한 소형 설탕공예 작품도 인기가 많았다.



스틀레과자점 하트, 별 등 다양한 모양의 초콜릿 빼빼로에 프랑스에서 주문한 토픽 젤리를 붙였다. 깔끔한 마무리와 세련된 포장에 돋보이는 제품. 그 외에도 스틱 모양 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해 인기가 많았다.



겐초과자점 진주 초콜릿을 붙인 롱빼빼로와 막대 빼빼로를 고급스럽게 포장한 고가 빼빼로를 준비했다.



라미에르과자점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딸기 초콜릿을 입힌 막대 빼빼로를 깔끔하게 포장했다.



김영모과자점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을 입힌 막대 배베로를 크기별로 만들어 포장했다.



밀&미과자점 사람 모양 쿠키, 젤리 등을 붙여 재미를 더한 배베로와 하트 배베로를 만들어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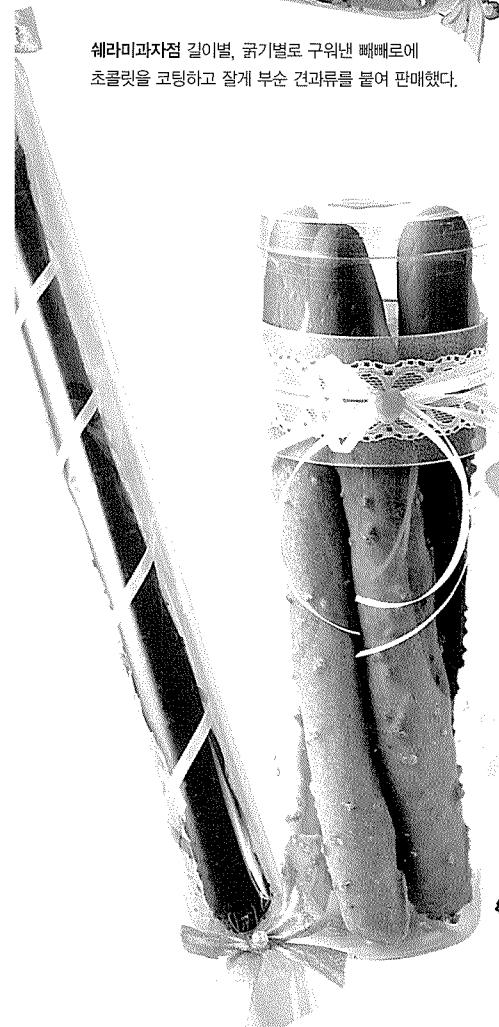
파리바게트 고소한 그리시니를 원형 통에 넣어 포장했다. 뚜레주르과자점 화이트, 핑크, 다크 초콜릿 배베로를 각각 개별포장하고 한데 모아 세트 제품으로 판매했다. 르메이에르과자점 대형 바게트에 초콜릿을 코팅하고 원하는 문구를 새겨 각각 개별 포장했다.



쉐라미과자점 길이별, 굵기별로 구워낸 배베로에 초콜릿을 코팅하고 잘게 부순 견과류를 붙여 판매했다.



쉐리리 미니 사이즈의 귀여운 투명 상자에 포장하고 막대 모양 배베로에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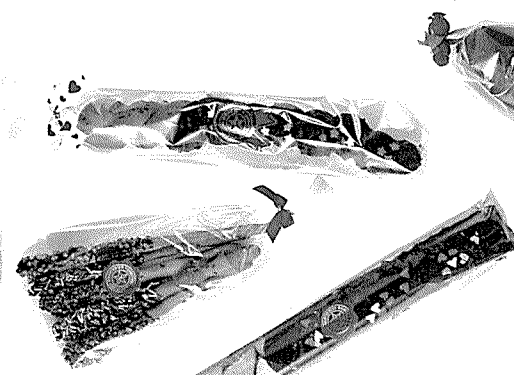


미호과자점 색깔별 배베로를 한데 포장하고 롱 배베로를 날개 판매했다.

엘리제과자점 얇게 구워낸 배베로를 우산 모양으로 포장하고 스틱 배베로를 바구니에 담아 포장해 정성을 더했다.



작크과자점 배베로 반죽을 떨어서 하트를 만들고 다크 초콜릿, 핑크 초콜릿에 코팅한 제품과 스틱 배베로를 세련되게 포장해 인기가 많았다.



코른베르그과자점 두네티네에 배베로, 쿠키 반죽을 굵기별로 구워낸 배베로 제품을 개별 포장해 판매했다.



백합베이커리 바게뜨에 초콜릿을 입히고 글자를 새겨 사랑모양으로 포장했다.

크르네과자점 막대 모양 배베로와 바게트에 초콜릿을 코팅하고 사랑의 문구를 적어 판매해 인기를 얻었다.